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다양한 영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간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들 두 집단이 공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202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정치 성향과 평등 의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성혼과 낙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적인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 교회 출석자의 25%, 즉 4명 중 1명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넘버즈 184호〉는 한국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과 어떤 분야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리포트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인식 조사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수	총 1,000명(유효 표본)	총 1,000명(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지역/성/연령별 비개신교인 비례할당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11월 15일 ~ 11월 24일 (10일간)	
•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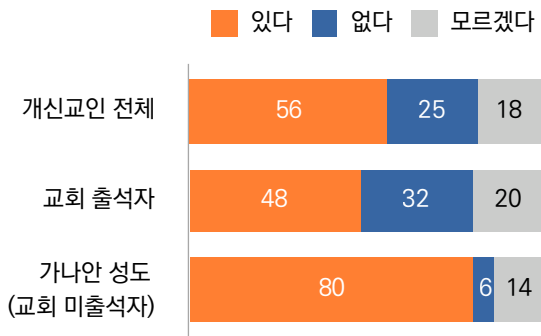
01

[개신교인의 종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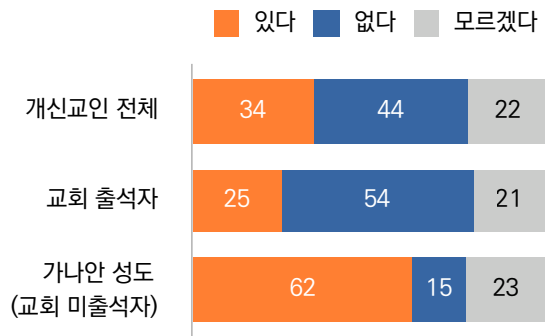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 ▶ 개신교인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까? 먼저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 56%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해, 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교회 미출석자의 경우 '그렇다' 비율이 무려 80%로 나타났다.
- ▶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4%가 '그렇다(매우+약간)'라고 응답했는데 교회출석자 중에서도 25%가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지 여부 (개신교인, %)



[그림] 타 종교에도 구원있는지 여부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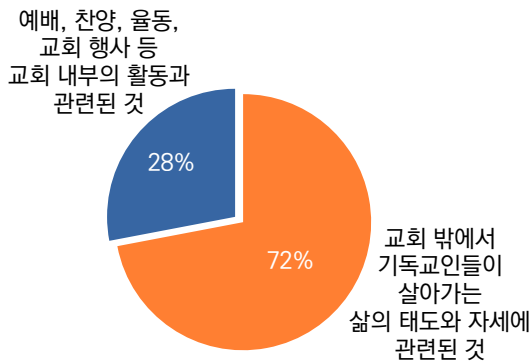


*있다 : 매우+약간, 없다 : 전혀+별로의 합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기독교 문화란, 교회 내부 활동보다 교회 밖에서의 개신교인 삶과 관련된 것이다!

- ▶ 두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기독교 문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묻은 결과,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것'이 72%로 '교회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28%)보다 2배 이상 높게 응답되었다. 기독교 문화, 전통적인 교회 규범에 관한 인식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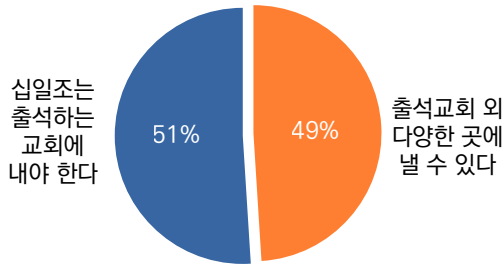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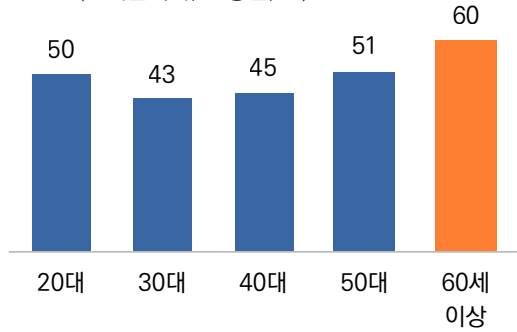
◎ 개신교인의 십일조 봉헌처, '출석교회'와 '출석교회 이외' 의견 팽팽히 맞서!

- ▶ 개신교인의 전통적인 교회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물었다. 십일조 봉헌처에 대한 의견(교회출석자)은 '십일조를 출석교회에 내야 한다'(51%)는 의견과 '출석교회 외 다양한 곳에 낼 수 있다'(49%)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 ▶ 60세 이상에서 '십일조를 출석교회에 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십일조 봉헌처에 대한 의견 (교회출석자)



[그림] '십일조는 출석교회에 해야 한다' 의견 (교회출석자,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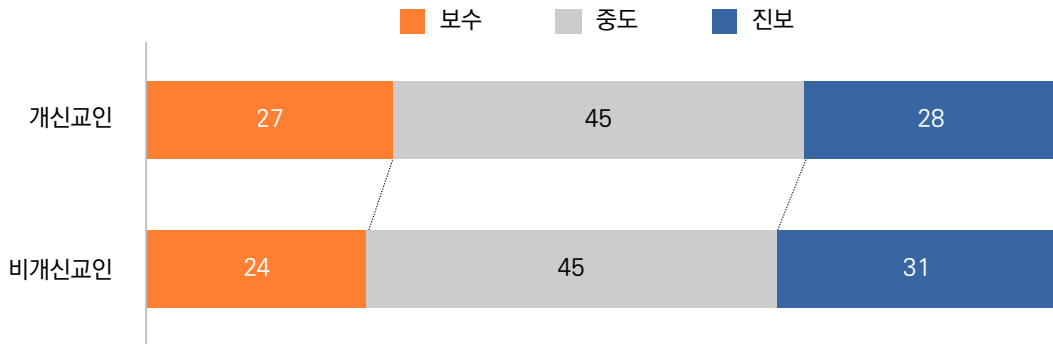
02

[이념·문화적 정치 성향]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보수적!

- ▶ 자신의 주관적 정치 성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중도'가 45%인 가운데, 개신교인은 '보수(매우+약간)' 27%, '진보(매우+약간)' 28%였고, 비개신교인은 '보수' 24%, '진보' 31%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약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관적 정치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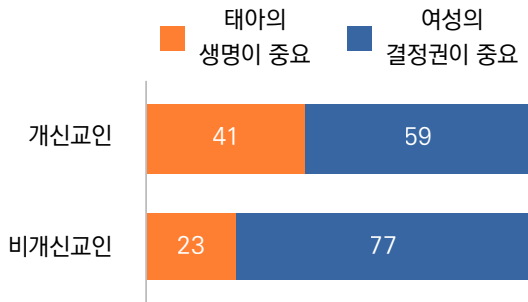


*5점 척도로 보수, 진보 각각 '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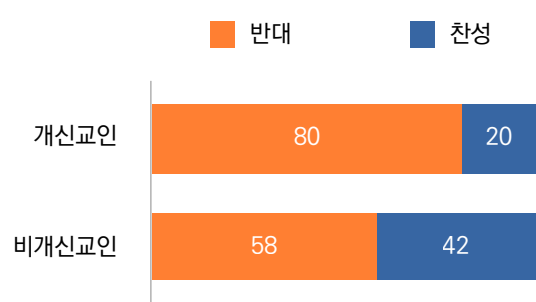
◎ 개신교인의 사회문화 인식, 비개신교인보다 더 보수적!

- ▶ 낙태 이슈와 동성 간 결혼제도 이슈를 통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사회문화 인식 차이를 알아봤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진보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 의견이 더 높았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보수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에 대한 의견(41%)이 비개신교인(2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높았는데, 개신교인의 반대 의견(80%)이 비개신교인(58%)보다 22%p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낙태에 대한 의견 (%)



[그림] 동성 간 결혼제도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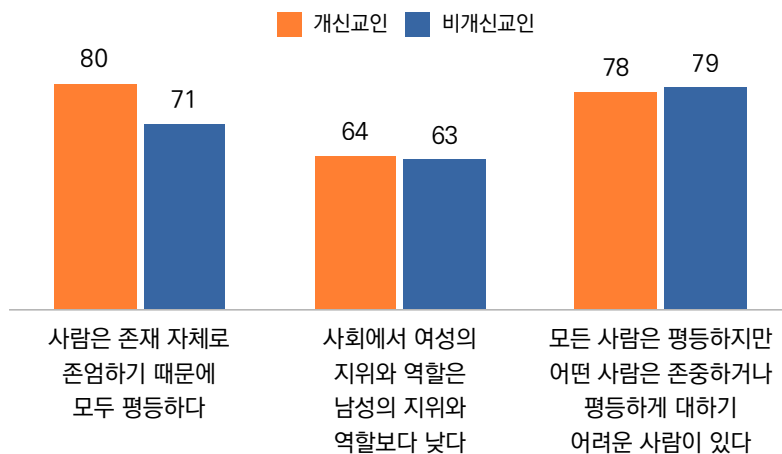
03

[평등·차별 인식]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인간 존엄과 평등 인식 더 높아

- ▶ 인간에 대한 이해와 평등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질문에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71%가 동의해 인간 존재의 존엄과 평등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에게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그 외 ‘남녀평등’, ‘차별적 평등’에 관련한 질문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인간 평등 관련 주장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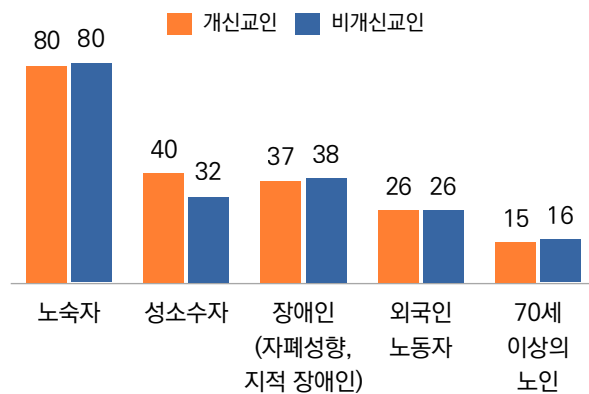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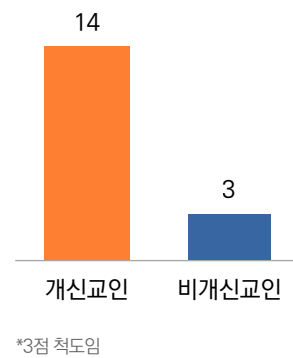
◎ 개신교인, '성 소수자'에 대해 비개신교인보다 4배 이상 불편함 느껴

-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사회적 소수자/취약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포용성은 어느 정도일까?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000이/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는 질문을 통해 거리낌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개신교인이 '성 소수자'를 꺼리는 비율은 비개신교인보다 8%p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 개신교인이 주변의 성 소수자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비율(14%)은 비개신교인(3%)보다 무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000이/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
(각 항목별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자, %)



[그림] 주변의 성소수자에 대해 불편하다는 비율
(주변에 성소수자 있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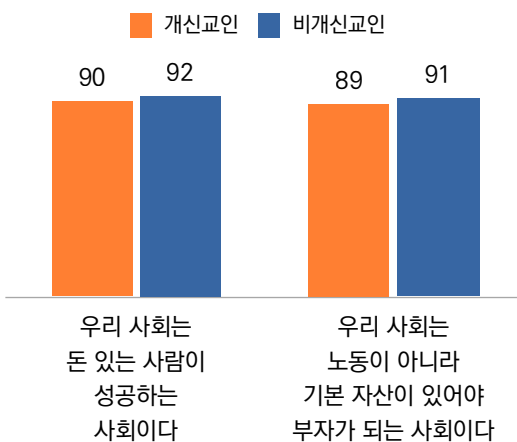
04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

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 비개신교인과 큰 차이 없어

- ▶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산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에 대한 의견 모두 응답자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동의했으며,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간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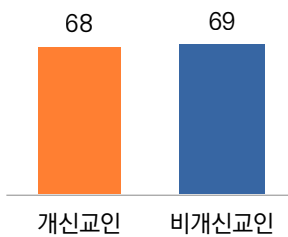
[그림] 돈 관련 주제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신분제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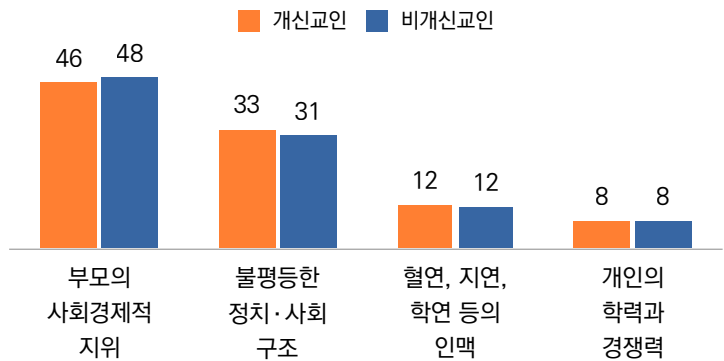
- ▶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이 동의했고, 이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이 비슷했다.
- ▶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개신교인 46%, 비개신교인 4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불평등한 정치·사회 구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의 순이었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 개인의 노력이나 학력 등의 스펙보다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현대판 신분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이다’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5점 척도임

[그림]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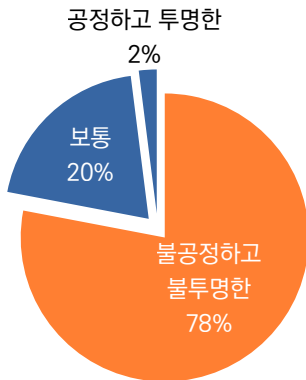


05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인식] 한국교회, 다른 종교에 비해 배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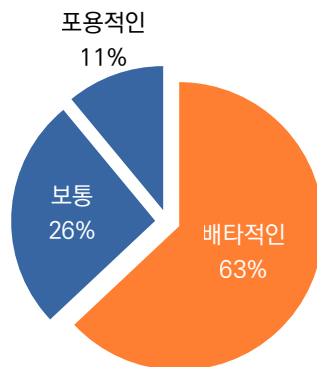
- ▶ 비개신교인에게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묻은 결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78%)는 의견이 ‘공정하고 투명하다’(2%)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포용성도 ‘배타적이다’(63%)라는 의견이 ‘포용적이다’(11%)는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비개신교인)



*5점 척도로 매우+약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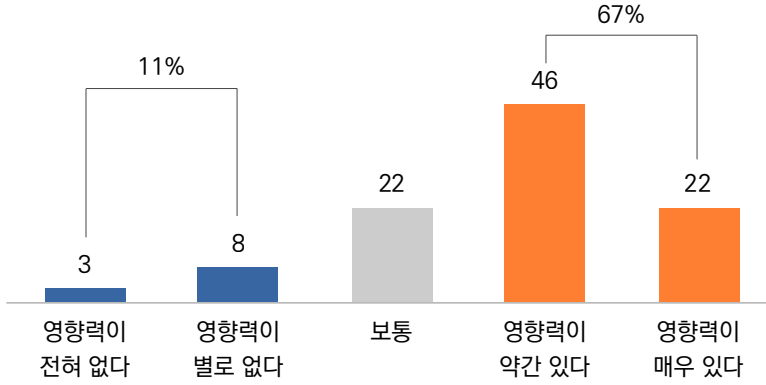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포용성 (비개신교인)



◎ 비개신교인 67%,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다!

- ▶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비개신교인 3명 중 2명꼴로 '영향력 있다'(67%)고 응답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상관없이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비개신교인, %)



근대 역사는 절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며, 사회적·신분적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평등한 인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근대사에서 나타난 평등사상은 '천부인권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천부인권론'은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표준 새번역)라고 하면서 인간의 창조와 가치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새번역)라고 했다. 이 말씀들은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가 중심이 된 미국독립선언(1776년)에 잘 구현되었다. 미국독립선언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강하게 천명했다. 1950~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흑인 인권운동도 기독교 바탕의 평등 운동이었다. 이는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이었으나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별, 경제적 지위, 국적 등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평등 실천은 활발했다. 조선 시대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며, 성씨나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일례로 서울의 연동교회는 1904년 최초의 장로로 고찬익을 세웠다. 고찬익은 천민으로 취급받던 갓바치 출신으로서, 연동교회는 당시 사회적 신분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 당회를 조직할 때, 구한말 고위 관료를 지낸 양반 출신 장로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민 출신을 장로

로 선출하면서 평등 실천에 앞장섰다. 조선의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에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던 인습을 교회가 앞서서 개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에도 여러 부문에서 진행된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등사상을 실천하였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평등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넘버즈 분석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총론에서는 비기독교인보다 평등 감수성이 뛰어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에 기독교인은 80%가 동의했는데 비기독교인은 71%가 동의하였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더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남성의 지위와 역할보다 낮다'에 기독교인 64%, 비기독교인 63%가 동의해서 양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에도 기독교인의 78%, 비기독교인 79%이 동의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혐오 대상자라고 불리는 노숙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서도 이웃으로서의 수용도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데에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각 60%, 63%가 동의해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기독교인보다 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번 넘버즈 분석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적 삶이 되어야 한다.